



A씨(남, 23세)

1 온라인 취업 사기 광고 사기로 인한 납치 및 고문

A씨(남, 23세)는 SNS 광고를 통해 “비자 없이 고수익 리조트 알바 가능”이라는 문구에 끌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도착 직후 업체 측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 감금되었다. 며칠 후 그는 현지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시설로 옮겨져, 보이스피싱 및 마약 운반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후 본국으로 시신이 송환되었다.



B씨 포함 2인

2 지인의 고액알바 제안에 속아 납치

B씨 포함 2인은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에 끌려가던 중 승합차가 휴게소에 잠시 멈춘 틈을 타 탈출하였고, 건장한 중국 남성들이 한국인을 뒤쫓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휴게소 직원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캄보디아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닻새가량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가 석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했다. 캄보디아 한인회는, 고수익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에 오는 20~30대 한국인이 많고, 3년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구조한 한국인이 200명이 넘는 등 고수익 알바 미끼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C씨, D씨

3 대출 브로커에 속아 출국 후 감금 및 폭행

C씨 포함 30대 여성 2인은 지난 8월,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돈 1300만원을 챙겨주겠다.”는 대출 브로커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남성 두명에게 피해자들을 넘긴 채 사라졌고, 3일간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된 뒤 범죄단체 ‘웬치’로 넘겨졌다. C씨는 프놈펜으로 넘겨져 감금 및 폭행 당했으며, D씨는 유흥업소에 끌려가 강제로 일하기도 했다.

둘은 감금 13일 만에 한국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구조됐으나, 한국에 귀국한 뒤에도 범죄조직은 납치 당시 강제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리며 돈을 요구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있다.



E씨, F씨

4 여행 중 연락 두절

지난 2월 20대 남성 E씨는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 출국 후 7개월여 만인 9월 SNS를 통해 가족에게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E씨를 감금 및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F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보냈다. 경찰은 F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